

양현종 완봉 첫 경험 '짜릿'

KIA의 '좌완 에이스' 양현종이 생애 첫 완투 경기를 완봉승으로 장식했다.

KIA 타이거즈가 2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시즌 7차전에서 9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양현종의 호투에 힘입어 2-0으로 승리를 거뒀다.

삼성 타선을 4피안타 2사사구로 완봉봉쇄한 양현종은 9개의 탈삼진까지 추가하며 자신의 완봉을 자축했다. 이날 승리로 양현종은 9연승 행진속에 다승부문 단독 1위에 올라섰다.

선취점을 놓고 양팀의 치열한 눈치싸움이 전개됐다.

3회말 양현종이 첫타자 강봉규에게 중전 안타를 내주자 삼성이 곧바로 보내기 번트를 감행했다. 하지만 양현종은 김상수와 오정복을 각각 파울플라이와 땅볼로 돌려세우며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했다.

4회초 선두타자 이용규가 볼넷으로 걸어나가자 KIA도 곧바로 번트작전을 펼쳤다. 그러나 2사 1·3루에서 차일목이 투수앞 땅볼로 물러났다.

5회초에도 선두타자 나지완이 볼넷으로 걸어나가 뒤 번트까지 성공했지만 대타작전이 실패에 그치면서 득점없이 KIA의 공격이 끝났다.

6회초 김원섭이 볼넷으로 걸어나간 뒤 안치홍이 팀의 첫 안타를 터트리면서 분위기가 반전에 나섰다.

최희섭의 볼넷까지 더해 1사 만루, 앞선 타석에서 득점기회를 살리지 못한 차일목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1-0이 됐다. 이어진 1사 만루 찬스에서 후속타 불발로 추가 득점에는 실패했다.

팀에 선취점을 안겨준 차일목이 8회초 다시 한 번 득점타를 가동했다. 8회초 2사에서 최희섭의 2루타에 이어 연속해서 2루타를 때려내며 2타점째를 기록했다.

2-0으로 앞선 9회말 선발 양현종이 다시 마운드에 등장했다.

첫 타자 김상수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운 양현종은 오정복도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냈다. 아웃카운트 하나를 남겨놓고 마지막 위기가 찾아왔다.

신명철에게 스트라이크 볼넷을 허용한 뒤 채태인에게 중전안타를 맞으며 동점주자가

4피안타 9K 완벽투... 9연승 다승 1위 KIA, 삼성 2-0 꺾고 전날 패배 설욕



KIA 양현종이 2일 오후 대구 시민야구장에서 열린 '2010 CJ 마구마구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역투, 생애 첫 완봉승을 거뒀다. (KIA 타이거즈 제공)

지 내보냈다.

상대는 올 시즌 12개의 홈런을 기록한 최형우. 양현종은 2-2까지 가는 볼카운트 싸움

끝에 유격수 땅볼로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챙기며 승리투수가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솔밤' 이보미·유소연 "시즌 2승 내가 먼저"

내일 레이디스 챔피언십 개막 올 6개대회 우승자 달라 관심 상금 선두 이정민도 다크호스



<이보미>

<이정민>

<유소연>

이보미(22·하이마트)와 이정민(18·삼화저축은행), 유소연(20·하이마트) 등이 올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10시즌에서 첫 2승 고지 정복을 노린다.

4일부터 사흘간 경기도 포천 일동레이크 골프장(파72·6424야드)에서 열리는 우리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총상금 4억원)은 시즌 중반으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전체 관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회다. 지금까지 열린 6개 대회에서 매번 우승자가 달랐기 때문에 누가 먼저 2승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가에 관심이 쏠리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회와 9일부터 시작되는 예스오일 챔피언십 인비테이셔널을 끝으로 약 2개월 정도 휴식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반기 레이스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선수들의 경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먼저 '디펜딩 챔피언' 유소연이 지난해 12

월 시즌 개막전으로 열린 오리엔트 차이나 레이디스오픈 우승 이후 시즌 2승에 도전한다. 그린 적중률이 지난해 78%(3위)에서 올해 69%(20위)로 낮아져 고전하고 있는 유소연은 "공격적으로 핀을 공략하는 스타일인데 그루브 규정이 바뀌는 등 핀 옆에 공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며 정확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달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상금과 신인왕 부문 선두에 나선 이정민도 주목해야 한다.

"축하 인사와 인터뷰 등으로 연습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정민은 "생각보다 일찍 첫 우승을 차지했는데 운이 좋았다. 이번 대

회도 꾸준한 성적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평균 타수와 J골프 대상포인트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보미도 "페어웨이가 좁은 홀이 많아 장타보다는 페어웨이 적중률에 신경을 쓰겠다"며 4월 김영주골프 여자오픈 이후 2승째를 다잡았다.

또 양수진(19·넵스), 김보배(23·현대스위스저축은행), 김혜윤(21·비씨카드) 등도 2승 고지 선착을 노리는 선수들이다. 지난해 국내 여자골프의 '지존'의 자리에 등극했던 서희경(24·하이마트)의 성적도 관심이다. 이 대회는 MBC-ESPN과 J골프, i-Golf, 네이버를 통해 생중계된다. /연합뉴스

우즈 이번엔 명예회복 할까

메모리얼 대회 부진 탈출 노려 최경주·양용은도 오늘 밤 출격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메모리얼 토너먼트에서 명예회복에 나선다.

우즈는 3일(한국시간) 밤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열리는 대회 첫 날 1라운드에서 스티브 스트리커·제이슨 본(이상 미국)과 함께 티샷을 시작한다.

지난해 11월 의문의 교통사고에 이어 잦은 추문까지 불거진 끝에 무기한 선수 생활 중단을 선언했다가 4월 복귀한 우즈는 첫 대회인 마스터스에서 공동 4위로 무난한 출발을 보였으나 켈일할로 챔피언십 컷 탈락,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4라운드 기권 등으로 체면을 구겼다.

2007년 이 대회 우승자 최경주(40)는 짐 퓨릭(미국)·헨릭 스텐손(스웨덴)과 함께 우즈보다 빠른 3일 밤 9시15분 10번 홀에서 1라운드를 시작한다. 양용은(38)은 잭 존슨·보 반 펠트(이상 미국)와 함께 3일 밤 9시04분 1번 홀에서 출발한다. /연합뉴스



타이거 우즈(미국)가 2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더블린 유어필드빌리지 골프장에서 열린 PGA 투어 메모리얼 토너먼트 연습라운드에서 칩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림픽의 날' 달리기 대회

대한체육회 20일 올림픽공원

대한체육회가 오는 20일 오전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에서 제24회 올림픽의 날 달리기대회를 연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주최하고 KOC와 공식후원은행인 수협은행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1894년 6월23일 프랑스 쿠페르탱 남작이 발의한 근대올림픽 부활을 기념해 전 인류에게 스포츠와 올림픽 정신의 보급을 목적으로 IOC 가입 205개국 올림픽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개최하는 대회다.

올림픽공원 일대 5km, 10km 코스에서 열리며 초등학교 1학년 이상 신체 건강한 남녀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KOC는 선착순 3000명으로 참가인원을 제한하고 전연에게 대회 티셔츠와 IOC 증서를 준다.

또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인 모태범, 이상화, 이승훈이 함께하는 사인회와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행사도 준비됐다. 참가신청은 대회 홈페이지(<http://run.sports.or.kr>)에 하면 된다. 문의사항 070-7098-8382. /연합뉴스

추신수 역전 홈런포 '왕'... 시즌 8호

하루 휴식을 취한 '추추 트레인' 추신수(28·클리블랜드)가 7일 만에 시즌 8호 홈런을 터트렸다.

추신수는 2일(한국시간) 디트로이트 코메리카파크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방문경기에서 6회 역전 결승

솔로 홈런을 날리는 등 5차례 타석에 들어서서 4타수 1안타를 쳤다.

우익수로 선발 출장한 2번 타자 추신수는 6회 1사 뒤 주자 없는 세 번째 타석에서 호쾌한 솔로포를 작렬시켰다. 가운데 낮게 떨어진 제러미 본더맨의 시속 135km짜리 슬라이

더를 놓치지 않고 잘 퍼올려 오른쪽 펜스를 훌쩍 넘겼다.

1-1로 맞선 상황에서 1점을 달아나는 역전 홈런이었다. 또 지난달 26일 시즌 7호 홈런 이후 7일 만에 그린 아치로 시즌 26번째 타점도 동시에 올렸다.

추신수는 타율이 0.280에서 0.279로 조금 떨어졌다. 경기에서는 추신수의 홈런이 결승타가 되면서 클리블랜드가 3-2로 이겼다. /연합뉴스

Challenge !!

방과후학교 전문교사 양성과정

- ▶ 방과후학교 전문교사 자격증 취득(학점 인정, 장학금 등 혜택)을 통한 취업 기회
- ▶ 방과후학교 전문교사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15급, 16급, 17급, 18급, 19급, 20급, 21급, 22급, 23급, 24급, 25급, 26급, 27급, 28급, 29급, 30급, 31급, 32급, 33급, 34급, 35급, 36급, 37급, 38급, 39급, 40급, 41급, 42급, 43급, 44급, 45급, 46급, 47급, 48급, 49급, 50급, 51급, 52급, 53급, 54급, 55급, 56급, 57급, 58급, 59급, 60급, 61급, 62급, 63급, 64급, 65급, 66급, 67급, 68급, 69급, 70급, 71급, 72급, 73급, 74급, 75급, 76급, 77급, 78급, 79급, 80급, 81급, 82급, 83급, 84급, 85급, 86급, 87급, 88급, 89급, 90급, 91급, 92급, 93급, 94급, 95급, 96급, 97급, 98급, 99급, 100급

신청자격	고졸 이상 또는 대학 재학생
수업기간	1년(학기제)
수업시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9시
수업장소	광주교육대학교
수업비용	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수업장소	광주교육대학교
수업시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9시
수업장소	광주교육대학교
수업비용	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광주교육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gju.ac.kr> 전화문의: 010-544-4350